

블랙핑크, 美 대표 아침 방송 접수

‘굿모닝 아메리카’ 화상 출연
인터뷰서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 우리에게 모든 걸 의미”
전날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에서도 무대 선보여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대표 아침 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GMA)’를 접수했다.

블랙핑크는 21일(현지시간) 오전 방송된 미국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화상으로 출연했다. 이날 MC 마이클 스트라한은 “블랙핑크가 ‘디 앨범’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멤버들을 뜨겁게 환영했다.

이어 화상 인터뷰가 진행됐다. 각종 글로벌 차트서 신기록을 작성한 블랙핑크는 그간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에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과 지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의미한다.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스트라한은 “블랙핑크가 이전(2019년)에 나왔을 때 기존의 그 어떤 ‘굿모닝 아메리카’ 출연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었다”고 언급. 이들의 막강한 과파력을 다시 한 번 부연했다.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디 앨범’에 대한 궁금증도 재차 등장했다. 블랙핑크는 “다른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팬들이 오랜 시간 우리의



블랙핑크 GMA.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정규앨범을 고대했던 걸 떠올려보면 ‘디 앨범’이 완벽한 제목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또 ‘가장 공연하고 싶은 장소’를 묻는 질문에 “블링크(팬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마친 블랙핑크는 앨범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무대를 꾸렸다. ‘러브식 걸즈’가 적힌 대형 네온 사인을 배경으로 블랙핑크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꽂 채웠다. 특히 블랙핑크의 이 무대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동시 중계돼 블랙핑크의 현지 인기와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미국 ABC 채널을 대표하는 아침 방송 프로그램으로, 40년이 넘는 역사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 블랙핑크는 작년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뚜두뚜두(DDU-DU DDU-DU)’로 미국 첫 생방송 무대를 펼쳤다.

블랙핑크는 전날 ABC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K팝 걸그룹 최초로 무대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굿모닝

아메리카’에 두 번째 출연해 미국의 아침을 깨우며 간판 K팝 걸그룹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블랙핑크는 데뷔 4년만에 첫 정규앨범 ‘디 앨범’을 최근 발매하고 인기몰이 중이다. 음원 공개 직후 미국을 비롯한 총 5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픈업 앨범 차트에서 발매 첫 주 모두 2위에 오르며 K팝 걸그룹 새 역사를 썼다. /뉴시스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주인공
진구, 정읍서 첫 촬영

배우 진구가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제)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22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진구의 새 작품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지난 15일 전북 정읍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평생 외톨이로 살아온 한 사내와 시청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한 집살이를 하게 되면서 겪는 삶의 변화를 다룬 작품이다.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인 ‘벨렌켈러법’을 주요한 소재로, 이벤트 대행사 식언터테인먼트의 대표 ‘재식’(진구 분)이 시청각장애를 가진 아동 ‘은혜’(정서연 분)와 인연이 닿아 소통하는 이야기다.

‘마더’, ‘26년’, ‘태양의 후예’ 등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를 펼쳐온 진구가 재식 역을 맡았다. 그는 극 중 유별난 결벽증의 소유자이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은혜와 함께 지내는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을 이어간다. 이후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며 방법을 찾게 되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재식과 은혜가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이룬 ‘일상의 기적’이 영화에 담길 예정이다. /뉴시스



‘이달의 소녀’ 새 미니앨범
아이튠즈 49개국 1위

그룹 ‘이달의 소녀’(LOONA)가 새 미니앨범 ‘미드나잇’(12:00)으로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22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가 지난 19일 발매한 ‘미드나잇’은 이날 0시 기준(한국시간) 세계 49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석권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네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칠레, 필리핀, 그리스, 뉴질랜드,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서 정상에 올랐다.

‘미드나잇’은 ‘제상의 모든 이달의 소녀들과 함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타이틀곡 ‘와 이나잇?’ 등 총 8곡이 실렸다. /뉴시스

BTS, 그레미 후보 될까?... 11월 후보 발표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 시상식 ‘제63회 그레미 어워드’ 후보발표 한달을 앞두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노미네이트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그레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NARAS)에 따르면, 11월24일(한국시간 25일) ‘제63회 그레미 어워드’ 후보가 발표된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 시상식에 7개 부문 후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로 ‘올해의 앨범’,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등에 후보로 지원했다. ‘맵 오브 더 솔 : 7’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방탄소년단은 연신 K팝의 새 역사를 써왔다. 영국 런던 웹블리를 비롯한 스타디움 월드투어, ‘빌보드200’ 1위에 이어 치

이번 시상식에 7개 부문 후보 지원
버라이어티 ‘다이너마이트’ 발매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보도

근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까지 K팝의 전인미답을 개척해왔다.

팬덤 아바타 사이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예언이 회자되고 있다. 슈가는 ‘민스트라다무스’(민윤기+노스트라다무스)라는 수식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언급했던 방탄소년단 목표를 멤버들과 함께 다 이뤄냈다.

‘빌보드 200’ 1위, ‘핫 100’ 10위권 진입은 일찌감치 이뤄졌고 그가 “이왕이면”이라며 바란 ‘핫 100’ 1위, 스타디움 투어도 성사됐다. 이제 슈가의 발언 중 ‘그레미 수상’만 남



지난 1월 24일 제63회 그레미 어워드 레드카펫을 밟은 방탄소년단 멤버들.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았다.

지난 1월 ‘제62회 그레미 어워드’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주최 측인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가 후보를 발표했을 당시 감탄을바이 따랐다.

미국 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그레미 어워드’ 84개 카테고리 어느 부문에도 후보로 지명되지 못해 여전히 보수적인 색채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경제 전문 포브스는 ‘BTS의 2020년 그레미 불발이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의 맹점을 드러내다’는 제목으로 ‘그레미 어워드’의 이번 시상식 후보 선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는 ‘핫100’ 1위로 미국 내 대중적 인기까지 확인한 방탄소년단의 후보 지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지금까지 후보 지명을 받은 적이 없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발매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레미 어워드’의 역대 수상자들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는 ‘그레미 뮤지엄’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과 화상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한편, ‘제63회 그레미 어워드’는 내년 1월 31일(현지시간) 열린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농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신선한 우리 먹거리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우리 농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농협”

‘같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농협이 늘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NH농협무주군지부장 황석관
무주농업협동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업협동조합장 양승욱

자연의 나라 무주

자연과 생명의 등불, 반딧불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